

2001 4 29 월

제 63 호

광
야
소
리

정 영 다 학 복 이 파
소 적 음 고 음 땅 워
년 인 세 들 을 의 웨
사 부 대 을 전 모 이
역 흥 의 변 하 든 브
이 을 화 며 정 는
다 위 시 소
한 키 년
! 며 들
에
게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고등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광야소리가 꼭 필요할까요?

우리 예배보는데 있어서 광야소리가 꼭 필요하나요?

여러분은 광야소리를 밟으면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주보...?

괜히 신각한 척 하는게 아니구요.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닌

여러분의 영혼에 냄는 소리가 되고 싶어서

함께 하는 소리가 되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거에요.

광야소리...

잠시 생각해볼 시간을 가졌으면해요.

새로운, 성숙해진 모습을 위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은

의견 보내주세요...

5mercy@korea.com

여러분의 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 하고싶은 열정! ; 가진 친구들

언제나 환영하구요.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는



예배는 8 45

.

예 배 순 서

“ ”

- ☞ 아침이슬 같은 연주 챔버팀
- ☞ 찬 양 찬양팀
- ☞ 기 도 학생
- ☞ 축하와 환영 |정수 전도사님
- ☞ 말 씀 |도배 목사님
(7:1~ 4)
- ☞ 헌 금 다같이
- ☞ 축 도 신도배 목사님

- ☞ 기다려지는 광고 광고팀
- ☞ 소그룹 시간 여라 !!!

광고팀...

여러분의 광고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세요?

한 주간 짬짬이 시간내서

혹은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잠을 설치며

만드는 그 광고에...

하나님의 미소가 끊드는 것을 아시나요.

여러분 고마워요.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중간고사 보는 친구들...

힘내라 콩콩!!!

지혜의 근원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의 성실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주 말씀에 내 발에 등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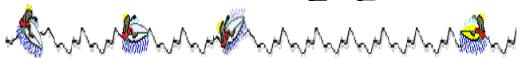


표준세번역

요한복음 7:1~4

1.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서는 다니려 하지 않으셨다.
2.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장막절이 가까워지니,
3. “나는 이 지방에서 떠나 유대로 가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4. “여기서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5.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6. “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7. “그러나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8. “나는 아직 내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9. “그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10. “나는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11. “사람이 어디에 있소?”
12. “더러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13. “그들은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예수께 대하여 드러내 놓고 말하지는 못하였다.”
14. “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15.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 하고 말하였다.
16. “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17. “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18. “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에게는 불의가 없다.”
19.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20. “귀신이 들렸소.”
21. “나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22. “!상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따라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23. “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 몸을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어찌하여 너희가 나에게 분개하느냐?”
24. “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라”

친구들 보세요.....



- 캠버팀의 김어령 학생이 미술 개인전을 합니다.

제목 : 어령이와 함께 하는 알콩달콩 이야기전

기간 : 5 2 5 ~ 5 8 !

장소 : () 733-6469

어령이의 이야기들으려 인사동에 같이 갈까요!

- 신도배 목사님과 양성철 총무님이 중국 반동 한인교회로 청소년캠프를 가신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생님들 보세요.....



- 4 29 11:30 풍자 용강중학교
체육관으로 모두 모두 모여주세요~!
신나는!

• 1등부 예배
매주일 선교관 두란노홀 08:45

• 기시는 분들

신 도 배 목 사 님
권 용 갑 전도사님
박 정 수 전도사님

• † 악소리꾼들